

<문항카드 2>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사회과학, 경영경제대학) / 문항 1,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문자 도입의 장단점, 언어의 기능성과 효용성, 노동 총량의 오류, 기술적 실업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문항 및 자료

<p>(가)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라는 도시에 테우트라라는 신이 살고 있었다. 이 신은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를 발명했다. 그중에서도 테우트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내세운 것은 <u>문자</u>였다. 테우트는 으레 하던 대로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타모스왕에게 가서, 문자가 널리 쓰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말했다.</p> <p>“오, 위대한 왕이여, 이 발명품은 이집트인들이 더 지혜로워지게, 또 더 잘 기억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입니다.”</p> <p>그러자 타모스왕이 말했다.</p> <p>“재주 많은 테우트 신이여, 우리 중의 한쪽은 유용한 발명을 했고 또 한쪽은 그 발명이 인간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판단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편애한 나머지 문자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앞세워 나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p> <p>당신은 문자가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의 망각을 부추길 뿐입니다. 문자를 배우면, 그것에만 의존하여 기억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 능력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호를 통해서만 기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약이 아니라 회상의 약입니다.</p> <p>또 당신은 그 발명품이 지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 발명품 때문에 사람들은 배움이 없이도 여러 가지를 주워듣게 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가장 곤란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p> <p>(나) 백 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 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꽤 씹하기 짝이 없었다.</p> <p>향리의 예법으로, 십 년 장이면 절하고 뵈어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酒草)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빼끔빼끔 피워, 이런 꽤 씹할 도리가 없었다.</p>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을 다녔다. 그 아버지가 짚신 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시방도 짚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꿩꿩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는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빼푼이 삼복이었다. 물론 낫 놓고 기역 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稅土) 마지기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빼푼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단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일 년이나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밀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둑방엘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둑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꺾쩍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

‘흥,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안 놈.’

백 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빼푼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엘 들었던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기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씨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 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코빼푼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 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후략 부분의 줄거리▶ 신기료장수를 하던 방삼복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미군 장교인 S 소위에게 접근한 방삼복은 그의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백 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부탁한다.

(다) 기술이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 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810년대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

다. 방직기는 산업 혁명 발아기의 기계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이 일었다.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 1930년 전기와 내연 기관이 도입된 뒤,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업’을 만연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1964년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 논쟁의 다른 한 축에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든다. 이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하므로 고정된 ‘노동 총량’이란 없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오류라는 것이다.

1.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제시문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국어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으나, 특정한 사전지식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수월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술은 지원자들의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 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으로 선발될 충분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각각 파악하고, 이 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가)의 ‘문자’와 (나)의 ‘영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가)에서 타모스왕의 견해와 (나)에서 백주사의 인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의 새로운 발명품인 문자의 도입에 대한 주장을 분석하여 내

용을 요약하고, (나)와 (다)를 활용하여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의 타모스왕의 문자의 도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와 (다)에서 논거를 찾아 (가)의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즉 (나)에서 외양적 지혜의 현실적 가치에 대한 논거와 (다)에서 노동 총량의 오류를 통해 논거를 찾아내야 한다. 이 문항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인 글에서도 비판 논거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과목명: 국어</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관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성취기준 1</td> <td> [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10국02-01] 이 성취기준은 읽기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독자는 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 나) 문항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성취기준 2</td> <td> [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 나) 다) 문항 1 문항 2</td> </tr> </tbody> </table>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10국02-01] 이 성취기준은 읽기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독자는 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가) 나) 문항1	성취기준 2	[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10국02-01] 이 성취기준은 읽기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독자는 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가) 나) 문항1									
성취기준 2	[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p>성취기준 3</p>	<p>[읽기]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국02-03] 이 성취기준은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p>가) 나) 다) 문항 2</p>
<p>성취기준 4</p>	<p>[쓰기]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p>	<p>문항 1 문항 2</p>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	-----------

<p>성취기준 1</p>	<p>[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p>	<p>문항 1 문항 2</p>
<p>성취기준 2</p>	<p>[12화작02-03]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화작02-03] 이 성취기준은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며 토론의 수준을 심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반대 신문 단계는 입론 및 반론 단계에서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묻고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토론의 절차로,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대측 발언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상대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의·응답으로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면, 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토론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토론자 간 생각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논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다. 	<p>문항2</p>
<p>성취기준 3</p>	<p>[작문의 원리]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화작03-04] 이 성취기준은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p>문항 1 문항 2</p>

과목명: 독서	관련
----------------	-----------

<p>성취기준 1</p>	<p>[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독서02-01] 이 성취기준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p>가) 나) 다) 문항 1 문항 2</p>
-------------------	--	---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성취기준 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 [12독서02-05] 이 성취기준은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에서는 필자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4	[독서의 분야]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5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다) 문항 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12문학01-01] 이 성취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나) 문항 1
성취기준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문항 1
-----------	---	------------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사회와 윤리]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 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한 참여의 필요 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문항1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 [10통사01-01]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관 점’은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장소와 영 역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3	[문화의 다양성]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가) 나) 문항 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 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가) 나) 다)
성취기준 2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 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가) 나) 다) 문항 2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플라톤의 <대화> 편 <파이드로스> 중에서	금성	2020	86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문학	채만식	좋은책 신사고	2020	137~140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독서	에릭 브리놀프슨, 앤드루 맥아피	미래엔	2020	82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를 맥락을 통해 파악하고, 나아가 세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까지 추론해낼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다른 텍스트에 비춰 보았을 때 드러나는 차이점을 부각시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는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화작03-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도덕과 교육과정”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제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2>는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의 새로운 발명품인 문자의 도입에 대한 주장을 논증적으로 분석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타모스왕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제이다. 우선 (가)에서 문자가 망각을 부추기며,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만을 갖게 만드는 도구라는 타모스왕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와 (다)에서 논거를 찾아 (가)의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나)에서 미스터 방의 사례를 통해 외양적 지혜의 현실적 가치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에서 언급한 기술적 실업에 대한 노동총량의 오류의 사례를 통해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6.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90	250	700
	비판적 사고력	90		
	표현력	35		
	정서법	35		
	분량	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	120	450	
	비판적 사고력 1	120		
	비판적 사고력 2	120		
	구성 및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4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제시문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은 이집트인들이 문자를 쓰게 될 경우, 기억을 소홀히 하여 내적 능력보다는 지혜의 외양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에서 백주사는 하찮게 여기던 미스터 방이 토막 영어를 익힘으로써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신통하게 여기며, 영어가 재주를 일으키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타모스왕과 백주사는 문자와 영어가 실제로 사람의 외적 능력과 겉모양만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타모스왕은 문자가 이집트인들의 기억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백주사는 미스터 방의 영어 재주를 신기해하고 부러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미스터 방의 영어 능력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은 새로운 도구인 문자가 기억을 소홀히 하게 하여 망각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자로 인해 이집트인들이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만을 가지게 될 뿐이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장 곤란한 상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타모스왕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을 수 있다.

(나)에서 미스터 방의 영어 능력은 타모스왕이 언급한 외양적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양적 지혜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미스터 방은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영어는 그동안 미스터 방을 하찮게 여기던 백 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탁을 할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구이다. 타모스왕은 내적인 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외양적 지혜가 지닌 현실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술이 도입된 후에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는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노동 총량의 오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일의 양이 무한하게 증가된다는 근거에 반하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타모스왕은 사람이 기억하는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문자의 도입으로 인해 기억의 양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타모스왕의 새로운 문자(발명품)의 도입이 이집트인들의 망각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그들의 기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